



사과·멜론·파프리카·오미자 등 명품 육성

남원 원예작물 개방 과고 넘는다

남원시는 WTO·FTA 등 급변하는 세계 농업환경과 시장 다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포도·사과·멜론·파프리카·오미자·고사리 등 원예특작 분야를 남원의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남원시는 올해 원예특작분야에 146억627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28억9100만원) ▲멜론 원예브랜드 육성 온실 및 종합처리시설(57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18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15억5900만원) ▲파프리카·멜론 수출단지 육성(9억1700만원) ▲특작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7개사업(17억6000만원) 등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과수분야의 경우 77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무인 방제시설, 품종경선 등에 15억원을 투자하며 ▲남원대표 특화품목 포도 생산단지 육성(20억원) ▲고랭지 사과 명품화 단지 육성(3억2000만원) ▲금지·아열지구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29억7800만원) ▲과수 수경축진제 지원 등 6개 사업(9억8800만원)을 집중 투자해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와 생산시설 현대화로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전체 자연환경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 2020년까지 재배면적을 ▲포도 1000ha ▲사과 300ha ▲복숭아 300ha ▲멜론 150ha ▲파프리카 50ha ▲딸기 150ha ▲오미자 50ha ▲오미자 300ha ▲참꽃감 150ha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지리산 눈꽃축제 오세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지리산 남원 비래봉 눈꽃축제'를 찾는 어린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남원시 운봉읍 애항회(회장 안선호)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남원 허브 벨리와 비래봉 일원에서 열린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이달 결판

반대대책위, 군산시 상대 인가처분 취소 소송 10일 판결 '변수'

토지주들의 반발로 장기간 표류중인 '새만금 송전선로' 문제가 이달 초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송전선로 반대 토지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시설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0일 군산지원에서 진행된다.

반대대책위가 지난해 5월 제기한 이번 소송은 그동안 공판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지연됐다.

이번 공판에서 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줄 때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대 대책위가 승리할 시에는 사업 전반의 재검토가 불가피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 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반대대책위가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새만금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구간(34km)에 총 89개의 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비는 변전소 건립 등을 포함해 모두 1900억원.

사업시행자인 한전은 지난 2009년부터 사업추진에 나섰으나 재산권 제약과 건강피해를 우려하는 토지주와 마을 주민의 반대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전은 현재 선로가 지나는 5개 읍면 가운데 토지이용 협의가 이뤄진 대야, 임피면 지역에서만 철탑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전체 공정률은 40%에 이른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반대가 심한 옥구읍과 회현면 지역에서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선로가 통과할 지역의 토지주 110여명(89필지) 가운데 여전히 20~30여명의 토지주가 반발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잇단 기업 입주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군산과 새만금 지역의 전력난을 해결하려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전 구간의 공사를 오는 연말까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3년여간 끌어온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성식기자 nogusu@

전주 권역별 웰빙공원 조성

덕진공원 편백 치유숲 등

전주대표 관광 명소 개발

전주시는 올해 권역별 '테마가 있는 웰빙공원'을 조성한다.

전주시는 "도심내 위치한 공원에 대해 5개 권역(북부, 동부, 중부, 서부, 남부)으로 나눠 '테마가 있는 웰빙 녹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녹색 복지도시'로서의 전주의 모습을 탈바꿈할 계획이다"고 5일 밝혔다.

권역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북부 권역의 경우 덕진공원에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 '웰빙 그린웨이'를 조성해 한옥마을과 더불어 덕진공원을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할 예정이다. 견지산 일원에는 '편백 치유숲'을 전복대와 함께 조성한다.

동부권역(기린공원·산성공원)은 최근 한옥마을과 연계한 '시나브로 길'이 조성중이며, 동고산성 남고산성은 역사적 의미를 살려 역사를 배우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부권역(다가공원·완산공원·화산공원)은 통학혁명과 일제강점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유적을 되살려 근·현대 격변의 한국역사를 느끼고 되새겨 보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속히 단절돼 가고 있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연결과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계 산책로를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남부권역(모악산·삼천공원)은 전주·완주·김제의 협력사업을 통해 '모악산 생태 탐방로' 조성을 위해 5억원을 투입해 등산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권역(황방산·문화대공원) 지역에는 황방산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및 팔복동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해 녹색길 등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 중이다.

한편 전주시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1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심내 그린터널과 천년숲 마을 마당, 학교숲 조성 등을 조성해 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수협 "올 목표 위판액 1000억 달성"

대표 수산물 김·멸치·꽃새우 등 위판량 매년 늘어

군산수협의 위판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5일 군산수협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72억원에 달했던 위판액이 2010년 781억원, 지난해에는 825억원으로 집계돼 올해 위판액 1천억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수협의 위판액 증가는 지역의

대표적 수산물인 김과 멸치, 꽃새우, 조기 등의 위판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새롭게 개장한 '비응항 위판장'의 매출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100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수협 관계자는 "수년째 이어진 김 황백화 현상의 피해가 다소 줄

어 올해 김 생산이 원활할 것 같다"면서 "위판액 1000억원 달성은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 그동안 관내 어업인들이 흘린 땀과 노고의 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33년에 설립된 군산수협은 현재 3400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경제와 신용사업을 합쳐 연간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북 최대규모의 수협이다. /전북취재본부=박성식기자 nogusu@

뉴스 브리핑

도 농기원, 시설재배작물 병충해 발병 주의보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시설재배 작물에 토마토 황화잎말림 바이러스병, 팻빛곰팡이병, 노균병 등 많은 병해충이 발병하고 있다"며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농기원은 5일 올해 첫 발표인 병해충 정보에서 "토마토 재배하

우스 등지에서 토마토 '황화잎말림 바이러스병'과 토마토 '반점위조 바이러스병'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병을 전염시키는 '담배가루이'와 '총재벌레류'에 대한 조기방제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김제농기센터 쌀·현미품질검증 기관 지정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2011년 '쌀·현미 품질검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센터는 기존에 분석하던 단백질 함량, 완전질 비율 등 쌀 성분 및 품위분석과 병행해 품종혼입 여부까지 관정함으로써 농업인

과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쌀 품종관별과 혼입률 분석이 가능하게 돼 김제쌀 브랜드화 및 품질등급화로 소비자 신뢰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성기자 hnews@

정읍시 옥외 광고 정비 개선 장관상 수상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1년 옥외광고 업무 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옥외광고물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풍수해 대비 광고물 관리,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 등 옥외광고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시는 옥외광고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 추진을 비롯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전담반 운영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한 민관협력단체 구축으로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활동 연장 운영

순창군은 겨울철에도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기간을 다음달 2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5일 순창군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6월 17일부

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20명)을 운영한 결과 ▲멧돼지 34두 ▲고라니 87두 ▲까치 등 조류 68수 등 총 189두(수)를 포획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lee@

정읍교육청, 초·중 원어민 영어교사 14명 배치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장택수)은 올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새해 교육협력 주요사업으로 학교급식을 유치원생 421명에게 무상 지원(교육청 100% 지원) 하는 한편 지자체와 대우투자를 통해 ▲초·중·농산어촌 고등학교 학생 1만3141명(교육청 50%·지자체 50% 지원) ▲도시지역 고등학교 4597명(교육청 50% 지원, 본인부담

50%)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계속 지원한다. 또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사업에 원어민 14명(교육청 8명, 지자체 6명)이 배치 운영되며,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지원사업에 유·초등학교 15개교(교육청 8개교·지자체 7개교)를 지정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력신장을 위한 ' 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중·고등학교에 6~8개반(1개반 20명)이 정읍시청의 지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2011년 신제품 **50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 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대산프리모가발

전북구이 전문점 **전북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어찌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곡지구 연초 제초장, 50m,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금광 아파트

전북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